

2011 문화계 결산

③ 문학·출판·문화재



올 해 이 지역 출판계는 젊은 작가들이 잇따라 큰상을 받고 책을 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올해 목포에 문을 연 김현 문학 전시관. <광주일보 자료사진>

콘서트 즐기며 '클래식과 친해지기'

클래식 전용 감상실 다락, 29일 공연...와인파티도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하우스 콘서트' 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일반인들이 클래식과 친해지기에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이런 음악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 4월 문을 연 클래식 음악 전용 감상실 '다락'(茶寮)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첫번째 클래식 콘서트를 연다.

개관 초기 영상음악 감상만을 진행하다 지난 7월부터는 '다락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클래식 전문 강좌를 열고 있는 '다락'이 야심차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

이번 음악회에는 클래식이 대중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전남대 교수) 씨와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동문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조현영, 첼리스트 윤소희씨

가 그들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베토벤의 '로망스 F장조', 모차르트의 '아다지오 K.261',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친숙한 곡들로 꾸렸다. 피날레 곡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3중주곡 D단조 1악장'이다.

공연 후에는 연주자와 함께하는 송년 와인파티도 열린다. 티켓 가격 1만원.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목화예식장 옆에 자리잡은 '다락'은 매킨토시 XRT26 스피커와 B&O 파워 앰프를 갖춘 80석 규모의 정통 감상실 '매킨토시홀'과 유리스미스2와 마크레빈슨을 갖춘 '유리스미홀'을 갖추고 있다.

'다락'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모차르트와 함께하는 수요영상음악회', '누구



다락서 공연하는 이형석·조현영·윤소희씨.

나 알아야할 기본 클래식 영상 감상회(매주 토요일) 등 무료 영상음악회도 진행된다. cafe.daum.net/darakclassic. 문의 062-226-01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작가들 약진... 호남문단 '훈풍'

한국 문학이 싹튼 호남 문단에 다시 봄이 오는가? 올 한해 이 지역 문화계는 젊은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과 중진작가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의 출판 환경 탓으로 대부분 젊은 작가들이 서울로 떠나 '문향 호남'이라는 말을 무색케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의 문화재 관련 기관들도 우리 문화재를 발굴·전시했다.

(문학과지성사)를 냈다. 정씨는 서울문화재단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2011년 문학창작활성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학교 출신인 소설가 오성용씨도 2011 대산창작기금을 함께 받았다.

보성 출신 시인 이상수씨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은 시들을 모아 첫 시집 '릿속에서 운다'(실천문학사)를 펴냈다.

중진 작가들의 책 출간도 이어졌다. 순

문학관 옹벽에 이중상 화백이 그린 높이 8m, 폭 81m의 대형 벽화가 제1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반면, 지역 출판계는 여전히 겨울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했다. '시와사람' '문학들' 등의 출판사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책으로 묶기는 했지만 지역 출판계의 불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학계 기반이 약해 대부분 젊은 작가들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하는 악순환도 계속됐다.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신창동유적=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저습지유적인 광주 신창동유적(사적 375호)에서 삼국시대 집터 10기를 발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 이들 집터에서는 아궁이를, 타날문토기, 화장석경질토기, 솥돌, 방추차 등도 출토됐다.

또 신창동 변말마을의 북서편 구릉의 남사면 일대에서 삼국시대 주거지가 밀집 분포돼 있음도 확인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도 최근까지 충남 서해에서 고선박 5척과 유물 3만2000여점을 발굴한 데 이어 태안 파도리 해역에 대해서도 정밀 발굴·조사를 벌였다.

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시대 충청, 전라, 경상도의 삼남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물을 갖기로 운반했던 선박인 조운선(漕運船)을 복원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출신 정유정씨 '7년의 밤' 올해의 책 대상에

신창동 유적지서 삼국시대 집터 10기 발굴 '성과'

▲문학의 봄을 맞았다=문학계의 가장 큰 성과는 미래의 문단을 이끌 젊은 작가들의 눈부신 활동이다.

먼저, 광주 출신 소설가 정유정씨의 '7년의 밤'(은행나무 펴냄)이 출판인들의 모임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 대상에 뽑혔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와 '내 심장을 쫓아'로 세계청소년문학상과 세계문학상을 잇따라 수상한 정씨가 펴낸 '7년의 밤'은 현재 영화화 관련도 활발 상태다.

또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조선대 출신 소설가 정용준씨가 올해 첫 소설집 '가나'

천 출신 작가 조정래씨가 초기 소설집 '상실의 풍경'을 개정 출간했고, '사평역에서'의 시인 광재구씨도 9년 만에 신작 에세이 '우리가 사랑한 1초들(불)'을 세상에 내놨다.

한국 문학 비평사에 한 획을 그은 문학평론가 고 김현(본명 김광남)을 기리는 '김현 문학 전시관'이 목포에서 문을 열었고, '오세암' 작가 고 정채봉을 기리는 '정채봉문학상'을 제정해 첫 수상자를 내기도 했다.

개관 3년째를 맞은 보성 태백산맥문학관은 올해 관람객 30만명 시대를 열었고,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물고기로 변신한 폐철과 칼

신양호씨 내년 1월23일까지 대인시장서 '어물쩍 어물쩍'



'고등어'

마, 톱, 빗자루, 붓, 컴퓨터와 휴대폰 잔해 등 온갖 잡동사니로 만들어졌지만 생선 특유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

신양호씨는 뉴욕과 광주 등지에서 8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제8회광주비엔날레 특별기획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3-1420.

/오광록기자 kroh@

시민과 함께하는 '아듀 2011'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송년음악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3시 '아듀 2011!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송년음악회'를 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음악회에는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아'와 정찬경(바리톤), 김백호(테너), 신은정(메조 소프라노), 이환희(소프라노), 이유정(피아노) 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국악가요와 크리스

마스 캐럴 등을 들려준다.

또 이날과 25일 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입구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캐리커처 그려주기' 행사도 결연된다.

화가와 만화작가 등 5명이 관람객의 모습을 무료로 스케치하고 채색해 준다. 문의 062-613-715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금호1동 '마을축제'

제1회 광주시 서구 금호1동 마을축제가 23일 오후 3시 금호1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사)빛고을 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2011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행사.

금호1동 주민들은 1년동안 준비한 마당극 '나라이 마를 때까지 봉잡네'를 무대에 올린다. 시나리오를 김응태·김희강씨가 썼으며 김상중·김광우·김응섭·구항미·정연자씨 등 마을 주민들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조이여행사)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Jeju Island, Cambodia, and other destinations. Includes prices, departure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providing additional details and disclaimers.